

친구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갈등 및 부모의 통제를 중심으로*

박 영 신[†]

인하대 교육학과

김 의 철

인하대 경영학부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친구가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동시에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과 부모통제 및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5개 남녀 고등학교에서 표집된 고등학생 총 1,399명(남 642명, 여 756명)으로서, 인문계 915명, 전문계 484명이었다. 측정도구는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 박영신(1997)이 제작하여 사용한 것을 활용하였으며, 자기조절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Bandura(1995a)의 질문지를 번역하였다. 학교유형별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관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 학생들은 부모 학력이나 직업 및 가정 내 공부방 환경이 더 좋았고, 전문계 학생들은 부모와의 갈등이 더 심하였다. 학교유형별로 자기효능감과 일탈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인문계 학생들이 더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였으며, 전문계 학생들이 일탈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학교유형별로 이러한 차이가 밝혀짐에 따라, 인문계와 전문계 학생 데이터를 각각 분리하여 LISREL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LISREL 분석결과, 변인들 간의 경로 패턴이 거의 일치하였기 때문에, 인문계와 전문계 학생 데이터를 합하여 전체 고등학생 데이터로 다시 LISREL분석 및 효과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해 친구 일탈행동의 정적인 직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부적인 직접효과를, 청소년의 부모와 갈등 및 부모의 통제는 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해 친구의 자기효능감은 부적인 간접효과를, 친구의 부모와 갈등 및 부모의 통제는 정적인 간접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친구가 일탈행동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이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가 갈등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청소년이 일탈행동을 많이 하였다. 그리고 친구가 자기효능감이 낮고, 친구가 부모와 갈등적이고 통제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청소년 일탈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여러 변인들 중에서도 친구의 일탈행동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예언변인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청소년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 일탈행동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일탈행동, 친구의 영향, 자기효능감, 부모자녀 갈등, 부모의 통제

* 이 연구는 2010년도 인하대학교 교수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 박영신(1997)의 데이터 중 일부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분석한 것임.

† 교신저자 : 박영신,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 yspark@inha.ac.kr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청소년의 범죄만도 문제인데,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증가한다는 위기의 사회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경찰청에서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소년범이 2005년에 83,477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118,058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에 재범자는 38,207명으로 재범률이 32.4%였다(한국일보, 2010. 7. 16).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1966년에 4.4%(경찰청, 2009)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대 20%, 1990년대 25% 수준이었는데, 2000년대부터는 30~35%로 급증(서울신문, 2010. 3. 1.)하였다. 사회문제심리학자들이 이러한 뉴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청소년기의 범죄 경험이 청소년기의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범죄 경험으로 전이(김준호, 이순래, 1995)되고, 이러한 범죄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감을 해치는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 증가 현상은 일탈청소년에 대한 중단 추적 연구 결과로부터 예측과 설명이 가능하다. 청소년 초기에서 중기까지 4년 동안 중단적으로 추적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에 의하면, 과거의 일탈행동은 미래의 일탈행동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큰 영향을 미쳤다. 중단자료로 경로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심각한 일탈행동을 한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심각한 일탈행동을 하는 정도가 많았으며, 나아가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심각한 일탈행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한번 일탈행동에 개입이 되면, 계속 이어서 일탈행동을 누적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일탈적 삶을 형

성하게 됨을 보여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은 청소년의 경험과 심리-행동의 형성에 대한 개념모형을 통해, 누적된 경험이 일탈의 하위문화를 어떻게 재생시켜 나가는가를 제시한 바 있다. 청소년의 주된 문화와 질적으로 다른 하위문화는, 다른 환경과 다른 경험 그리고 다른 심리의 역동을 일으키며, 지속적인 부정적 피드백과 더불어 일탈적 삶의 양식을 구성해 나간다.

일탈청소년들이 많은 부정적인 피드백과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위탁 청소년¹⁾과 일반 중고등학생들을 비교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1b)에 의하면, 위탁 청소년들이 더욱 학교에서의 처벌경험이 많았고, 동시에 일탈행동도 더 많이 했다. 또한 일반 청소년들은 2.7%만이 가출 경험이 있는데, 보호관찰 청소년은 40%, 즉 10명 중 4명이 가출을 하였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더 손쉽게 일탈 환경에 접하고 더 많은 일탈행동에 개입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학교에서 처벌을 많이 받고, 가출을 하는 등, 이러한 부정적인 피드백과 경험이 일탈행동을 더욱 누적시켜 나간다.

소년범들은 갑작스러운 범죄행위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감되기 이전에 대부분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이 있고, 또한 보호관찰 명령을 받기 이전부터 다양한 비행에 개입되

1) 여기에서 위탁 청소년이란 쉼터나 교육청에 위탁된 청소년을 의미한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b)은 총 13개 쉼터(서울특별시 6개, 부산광역시 1개, 대구광역시 1개, 대전광역시 1개, 인천광역시 1개, 광주광역시 1개, 안산시 1개, 수원시 1개) 및 12개 교육청 산하 청소년상담센터(서울시 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1개, 서울시 내 지역교육청 청소년상담센터 11개)에서 위탁 청소년을 표집하였다.

어 있다. 즉 공식적인 범법행위로 판정받기 이전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여러 누적된 잠재적 비행의 세계에 연루되어 있다. 비행이 누적되면서 여러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데, 비행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정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여건에서 학교까지 그만 두게 되면,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결국 보호요인이 그만큼 줄어들고 비행은 더욱 가속화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에 학교에서의 적절한 선도가 예방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Kim, Park & Kim, 2007)을 통해, 규명된 요인들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청소년 범죄나 비행이 되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일탈행동²⁾ 상황에서 최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가정이나 학교 또는 사회가 갖는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사소한 일탈행동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차 심각한 일탈행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나아가서 학교중단이나 가출 등의 상황과 연계되면서, 결국은 잦은 비행을 하다가 구속 수감되는 청소년 범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범죄 청소년으로 구속되기 이전 단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에 관심을 갖고, 이러

한 일탈행동이 형성되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통해,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시작되었다.

청소년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김의철과 박영신(1999)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가정환경으로부터 수직적 영향을, 친구환경으로부터 수평적 영향을, 학교환경으로부터 사각적 영향을, 사회 환경으로부터 잠재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과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에 대한 개념모형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친구환경 중에 친구의 일탈행동도 포함되었다. 금명자(2008)는 우리나라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된 12가지 특성을 정리하고,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 가정, 학교, 교우, 지역사회를 구분하고, 그 중에서 교우 원인에는 불량친구, 또래 동료, 부적절한 이성행동이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한상철(2008)은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으로 부적절한 가정환경과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행동, 부정적인 또래 압력 및 입시 스트레스를 지적함으로써,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4)은 청소년의 인간관계가 일탈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인간관계를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 중심으로 검토한 바 있다.

여러 영향력 있는 변인 중에 친한 친구의 심각한 일탈행동은 청소년의 일탈 경험을 가속화시키는 촉진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박영신, 김의철, 2003; 2008).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청소년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 인간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친구의 영향에 있다. 특히 친구의 일

2) 청소년 범죄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년원에 구속된 근거가 되는 행위를, 청소년 비행은 그 행위로 인해 구속 수감이 되지 않는으나 보호관찰을 받는 등 그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를, 청소년 일탈행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의 규범과 기준에서 벗어난 다양한 문제행동들로, 연구자는 구분하여 명명하기로 한다.

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와 동시에, 가정환경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중에서도 부모자녀 갈등 및 부모의 통제가 일탈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청소년의 심리특성으로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일탈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더불어 분석하고자 한다.

친구관계와 청소년 일탈행동

청소년 일탈행동 형성과정에서 심리적 역동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개관한 결과(박영신, 김의철, 2003; 2008)를 종합해 보면, 환경특성으로서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및 사회환경, 그리고 개인특성으로서 청소년의 심리 및 행동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은 학교의 물리적 환경도 있지만 인간관계 면에서 교사학생관계와 친구관계가 있는데, 특히 친구관계는 청소년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Park & Kim, 2006)되어 왔다.

친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김경연과 하영희(2003)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규칙위반행동³⁾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친구의 규칙위반성향의 영향이 가장 컸

고, 그 다음으로 죄책감 및 도덕적 이탈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가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보여준다. 송미경(2006)의 연구에 의하면, 친구의 일탈행동 및 친구와의 애착관계와 같은 친구변인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경로계수가 매우 컸다. 따라서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친구 일탈행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연구들이 있다. 즉 불량한 친구를 사귀는 것 자체가 친구의 일탈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명자(2008)는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하게 되는 것이 교우와 관련된 원인으로 불량친구, 또래동조, 부적절한 이성행동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청소년 일탈행동의 관련을 밝히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이은희, 공수자와 이정숙(2004)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비행친구에 대한 접촉은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해 매우 높은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즉 비행친구를 많이 접촉하는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 행동을 훨씬 많이 하였다. 김경식과 이현철(2006)의 연구에 의하면, 비행친구는 가정환경이나 개인특성이 청소년 일탈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일탈에 대한 직접효과가 가장 컸다. 따라서 비행친구를 만나는 빈도도 높고 비행친구들과 밀접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청소년일수록 가출, 왕따 시키기, 성범죄, 사이버범죄 등 다양한 일탈행동들에 더욱 개입하였다.

비행 또는 범죄 친구의 수와 청소년 일탈행

3) 여기에서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은 교사 및 부모에 대한 반항, 커닝, 음주, 흡연, 거짓말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위반하기 쉬운 행동들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친구의 규칙위반성향은 '내 친구는 거짓말을 잘 한다'와 같이 규칙위반행동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동과의 관련도 확인되었다. 탁수연, 박영신과 김의철(2003)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초범 청소년은 공범 친구가 한번 이상의 범죄 경력을 가진 경우가 22.5%인데 비해, 재범 청소년들은 52.9%나 되었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보호관찰 경력이 있는 친구가 1명 이상(초범-33.2%, 재범-52.1%)이었으며, 소년원 경력이 있는 친구도 1명 이상(초범-20.1%, 재범-20.8%)이었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45.6%는 가까운 친구 중에 퇴학된 친구가 1명 이상이었다. 이춘화(1999)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에도, 폭력비행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비행 친구의 수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탈 청소년들이 같이 일탈 행동을 하거나 나아가서 비행이나 범죄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두었고, 그러한 친구들로부터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행 또는 범죄친구를 많이 접촉하거나 그러한 친구의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친구의 비행이나 범죄행동에 접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결국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 일탈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여러 이론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그 중에 또래 동조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하연, 오경자와 윤진(1991)이 남자 고등학생 집단과 서울소년감별소에 위탁된 비행 집단을 대상으로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를 측정하여 비교한 바 있다. 또래집단 동조를 비행 동조와 중립적 행동 동조로 분류하고, 비행에 대한 동조는 친구가 절도, 음주, 흡연, 폭행과 같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중립적인 행동에 대한 동조는 운동경기, 친구들과의 모임, 과외활동 등의 상황을 다루었다. 비행 및 중립적인 행동 각각에 대해 적극적인 동조에서부터 적극적인 거부에 이르기까지 동조행동 정도를 측정한 결과, 비행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또래동조 수준이 높았다. 즉 비행에 대한 동조만이 아니라 중립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비행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또래동조성이 높음으로써, 비행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또래동조 성향이 높았다.

박순길, 조증열과 박영호(2003)가 중학생을 흡연 무경험 집단, 한번 흡연해 본 적이 있는 흡연 시도 집단, 두 번 이상 흡연한 실험적 흡연 집단의, 세 단계 집단으로 분류하여 흡연에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독립변인 중에 또래 비행동조가 포함되었는데, 또래 비행동조는 ‘제일 친한 친구가 학교에 결석하자고 한다면 자신도 그렇게 하겠는가?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데 친구들이 영화를 보러가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친구가 수업시간에 땡땡이를 치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는가?’와 같은 문항들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겠다’에서 ‘그렇게 하겠다’에 이르기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녀 학생 모두에서 흡연의 첫 시도와 실험적 흡연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또래 비행동조로 밝혀졌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요소로 모델링을 통한 대리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이 숙달된 또래집단 모델링으로부터 개인효능감을 강하게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chunk & Hanson, 1985).

청소년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의

일탈행동과 친구관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일탈행동을 같이 하던 친구 관계가 공범관계로 발전하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데 있다.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범죄경력이나 보호관찰 경력이 있는 친구 수가 많고(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3). 청소년 범죄의 과반 수 이상이 공범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친구관계 중에서도 선행연구 결과들에 토대하여 특별히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규명에 초점을 둔다.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 일탈행동

청소년 일탈행동이 친구관계만이 아니라 가정환경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은 자명하다. 박영신과 김의철(1998)이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 청소년과 일반 중고등학생의 가정환경을 비교하였을 때,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범죄 청소년들이 일반 중고등학생에 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훨씬 낮았다. 또한 박영신과 김의철(2001b)이 위탁 청소년과 일반 중고등학생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위탁 청소년의 부모가 더욱 낮은 사회경제적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영신, 김의철과 탁수연(2004)이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를 비교한 결과, 보호관찰 청소년 부모의 학력 및 경제수준이 훨씬 낮았다. 또한 친부모 여부별로도 차이가 있어, 일반 청소년은 친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보호관찰 청소년은 편부모나 계부모인 경우가 20%나 되어, 가정의 구조적 특징도 훨씬 열악하였다. 그리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부모와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20%가 넘었다.

가정의 물리적 환경만이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라든가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 일탈행동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Park, 2001). 예를 들면, 부모와의 갈등이 청소년 일탈행동이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희, 박영신과 김의철(2004)은 청소년 중에 일탈행동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일탈행동을 경험한 집단을 분류하여, 이 두 집단 간에 가정환경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탈행동 경험집단이 더욱 부모와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신과 김의철(2000)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갈등과 일탈행동의 관계를 각각 분석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 중, 고, 대학생 모두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갈등이 일탈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부모와 갈등이 높을수록 일탈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탈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대학생 경우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중학생 경우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일탈행동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예언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부모와 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 일치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분석한 결과(이영경, 장훈, 최진이, 허태균, 2008)도 부모와의 갈등이 일탈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녀와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 일치도가 낮을수록 아동의 문제행동이 더 많았는데, 여기에서 아동의 문제행동 속에는 공격행동도 포함되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 유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고, 나아가서 다양한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고 할 수 있다.

갈등은 갈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부모로부터의 애정이나 사회적 지원의 결핍 심지어는 부모의 거부나 적대라는 매우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청소년이 지각하게 된다. 일탈청소년들이 부모의 애정이나 사회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결과들이 있다. 옥정, 오윤희와 정현옥(2001)이 소년원에 수감 중인 범죄 청소년과,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지만 일탈행동이 심한 집단과, 일탈행동을 하지 않는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정상집단에 비해 일탈집단이나 범죄 집단이 훨씬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영희, 박영신과 김의철(2004)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일탈행동을 경험한 집단이 경험하지 않은 집단보다 부모의 정서적, 정보적, 경제적 지원을 더욱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금혜(2008)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족의 지지가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친구들이 비행을 어느 정도 저지르는지를 평가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족의 지지가 비행친구 접촉에 대해 부적인 표준화 회귀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족들로부터 긍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일수록 비행친구가 많고, 친구를 통한 일탈행동의 경험이 많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박영신과 김의철(2004)은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일탈 청소년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싶은 존재인 부모로부터 버려진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고, 일탈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가 적대적이고 거부적이며, 자녀의 성취에 대해 낮은 기대를 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탁 청소년들 경우에 일반 중 고등학생들보다 부모로부터 애정을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박영신, 김의철, 2001b). 그리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부모도 일반 청소년의 부모보다 훨씬 자녀양육태도가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Patterson, DeBaryshe와 Ramsey(1989)는 청소년의 반사회적 비행이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비롯됨을 지적하고 있다. 즉 부모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적고 처벌적인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자녀들에게서 반사회적 비행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 일탈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는 결과들이 있다. Park과 Kim(2003)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일탈행동과 심리환경 변인들을 요인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탈행동 요인에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인 부모관련 변인들은, 부모의 적대와 거부 및 통제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학업성취 요인에는 부모의 성취압력, 애정, 사회적 지원과 같은 변인들이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한 부모자녀관계 변인들을 추가하여 요인분석 하였을 때(Park, 2000)에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즉 일탈행동 요인에 부모의 적대, 거부, 통제 외에도 갈등 및 무관심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반면에 학업성취 요인에서는 애정, 사회적 지원, 성취압력 외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 정도 및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높은 부하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와 일탈행동을 형성하는 부모자녀관계 변인들이 질적으로 다름을 보여준다.

자기효능감과 청소년 일탈행동

청소년 일탈행동은 친구관계나 부모자녀관계와 같은 인간관계 차원만이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특징들과도 밀접히 관련됨을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 심리특성 중에서 자기효능감과 관계를 검증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기효능감의 다양한 하위변인들과 청소년 일탈행동의 관계가 검토된 바 있다. 즉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학업성취효능감 및 관계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낮은 효능감이 심각한 일탈행동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의철, 박영신, 1999).

또한 일탈행동 무경험 집단과 일탈행동 집단의 자기효능감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일탈행동 경험집단의 자기조절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 학업성취효능감, 주위사람기대일치효능감이 훨씬 낮았다. 중학교 1학년 경우에는 일탈행동 경험집단이 더욱 낮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을 보였다. 박영신과 김의철(2001b)이 위탁 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위탁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어려움극복효능감이 중 고등학생보다 더욱 낮았다.

자기효능감의 많은 하위변인들이 청소년 일탈행동과 의미 있는 관련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자기조절효능감이 중요성이 밝혀졌다. 광금주, 김의철과 박영신(1999)의 연구에서 남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사소한 일탈과 심각한 일탈을 포함하는 일탈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자기

조절효능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효능감 변인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자기효능감과 개념적으로 연관되는 변인들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관계됨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김청송(2007)은 강인성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에서 강인성은 자기투입성(의사결정을 통제하며 일상생활에 깊이 간여하는 능력), 도전성(변화를 발전이나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능력), 통제성(스트레스 요인을 적절히 인지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신감과 숙련감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었다. 강인성의 이러한 구성개념은 자기효능적 신념과 관련되는 측면이 있는데,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강인성이 낮을수록 청소년 비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혜정(2009)은 부모의 지원과 청소년 비행 사이에서 자기통제가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부모의 지원이 낮을수록 자기통제수준이 낮으며, 이렇게 자기통제수준이 낮은 경우는 비행의 정도가 높았다. 여기에서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는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은 높고, 장기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은 낮았다. 자기통제력이라는 것도 일종의 자기효능적 신념과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개념으로서, 낮은 효능감이 높은 비행과 연결되는 다른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되는 맥락이다.

일반적인 일탈행동은 아니지만 사이버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효능감과 관련됨을 밝힌 연구결과도 있다. 탁수연, 박영신과 김의철(2007)이 게임중독, 채팅언어폭력, 사이버사기, 성적 일탈, 불법정보유출을 사이버일탈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사이버 일탈행동은 관계효능감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관계효능감이 낮을수록 사이버일탈에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이버 일탈행동과 청소년의 일반적인 심각한 일탈행동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일탈행동이든 사이버 일탈행동이든 모두 낮은 효능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누적되어 왔다. 박원모와 천성문(2008)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녀가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을 믿어준다고 느끼며,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여부를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로서 부모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을 밝힌 연구들이 많이 있다. 김의철, 박영신, 김의연, Tsuda & Horiuchi(2010)가 경로분석을 하였을 때, 부모의 사회적 지원은 자녀의 어려움극복효능감에 대해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집단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모가 사회적 지원을 많이 해 줄수록 자녀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하게 극복해 나가는 효능적 신념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박영신, 김의철과 김영희(2007)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 요인구조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애정적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 관계효능감, 어려움극복효능감, 학업성취효능감과 모두 동일한 요인에 부하되었다. 이는 부모자녀관계가 애정적이고 정서적 지원을 많이 해 줄수록 청소년 자녀가 학업성취와 밀접히 관련된 학업성취효능감이나 자기조절학습효능감만이 아니라, 관계효능감과 어려움극복효능감까지도 증진시킴을 시사한다.

마찬가지 맥락이지만,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와는 대조되는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낮추게 됨을 보여주는 결과들도 있다. 박영신, 김의철과 박영균(2010)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세대차 지각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부적으로 의미 있는 직접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LISREL분석에 포함된 자기효능감 잠재변인은 어려움극복효능감과 관계효능감을 측정변인으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세대차를 느낄수록, 어려움극복효능감이나 관계효능감이 감소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여준다.

연구모형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에 토대한 연구모형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 일탈행동은 2개의 측정변인, 즉 사소한 일탈행동과 심각한 일탈행동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은 청소년 개인의 심리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러한 심리특성으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일탈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경로가 연결되었다. 자기 효능감의 하위변인들이 청소년 일탈행동에 관련되어 있음은 선행연구들(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9; 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 김의철, 박영신, 1999; 박영신, 김의철, 2001b)에서 밝혀져 왔다. 이 연구모형에서 잠재변인으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을 측정변인으로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으로서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의 여러 하위변인들이 청소년 일탈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왔다.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 박영신, 김의철, 2000)이

나 부모의 통제(Park, 2000; Park & Kim, 2003)가 청소년 일탈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다. 이 연구의 모형에서 부모자녀관계 잠재변인은 부모와의 갈등 및 부모의 통제를 측정변인으로 하였다.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 일탈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경로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경로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의철, 박영신, 김의연, Tsuda & Horiuchi, 2010;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박원모, 천성문, 2008),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한 선행연구들(박영신, 김의철,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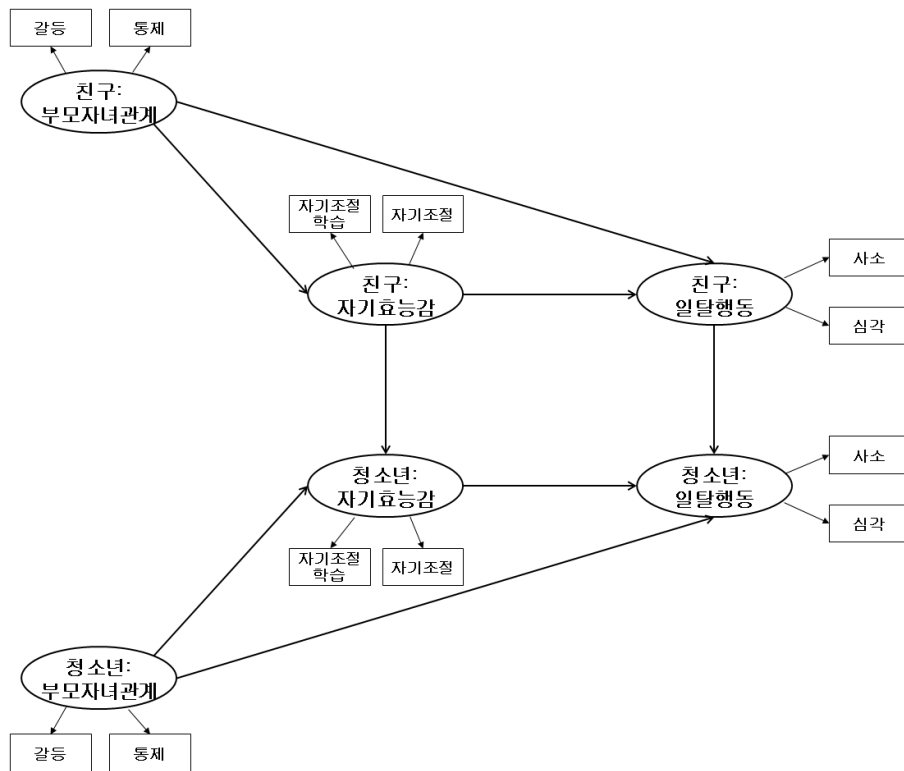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한 친구 일탈행동, 청소년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영균, 2010)에 기초하였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동시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있는 모형으로 구축이 되었다. 이러한 경로모형의 형태는 청소년 집단만이 아니라 친구 집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가정되었다. 따라서 친구의 부모자녀관계가 친구의 일탈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친구의 자기효능감은 친구의 부모자녀관계와 친구의 일탈행동 사이에서 심리적 매개변인으로 가정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역동과, 친구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역동은, 친구의 자기효능감에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으로, 친구의 일탈행동에서 청소년의 일탈행동으로 두 경로선이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연구모형으로 완성이 되었다. 즉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으로 구성되었다.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력이 있음은 선행연구들(김경식, 이현철, 2006; 김경연, 하영희, 2003; 송미경, 2006;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에서 확인되어 왔다.

방 법

분석대상

이 연구를 위해 총 5개 고등학교가 표집되었는데, 3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와 2개의 전문계 고등학교로 구성되었다. 3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1개교는 남학교였으며, 1개교는 여학교였고, 나머지 1개교는 남녀공학이었다. 남녀공학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각각 반씩 표집하였다. 2개 전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1개교는 남학교, 나머지 1개교는 여학교였다. 각 학교에서 1학년만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이 구분되어 있는 4개교에서는 300명씩 표집계획을 하고, 남녀 공학 1개교에서는 남녀학생 각 300명씩 표집계획을 함으로써, 총 1,800명을 계획하였다. 각 학교에서 실제로 질문지에 응답한 수는 1,706명이었다.

1,706명의 자료 중에서, 질문지의 문항 중에 ‘현재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은?’에 친구 이름을 직접 기록한 1,512명의 질문지만을 선정하였다. 가장 친한 친구의 질문지를 매칭 데이터로 분석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이 문항에 친구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이 연구의 가장 핵심 변인이 측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1,512명의 질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것으로 판단된 113명의 질문지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한 경우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총 1,399명의 질문지가 최종분석대상으로 확정

표 1. 분석대상

	남	녀	무응답	계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432	482	1	915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210	274	-	484
계	642	756	1	1,399

되었다.

표 1은 학교유형별 성별로 최종분석대상을 정리한 결과이다. 총 1,399명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이 915명이었으며, 전문계 고등학교 1학년이 48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642명, 여학생이 756명, 성별을 무응답한 경우가 1명이었다.

측정도구

이 연구의 측정도구는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과 박영신(1997)의 연구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것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측정도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의 문항구성 및 각 변인의 Cronbach α 신뢰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모자녀관계는 갈등과 통제를 측정변인으로 하였다. 갈등은 ‘부모님과 의견차이나 갈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학교 성적, 귀가 시간, 사귀는 친구 등 총 8개의 문항들에 대해 각각 갈등의 정도를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답지는 ‘전혀 없다’(1)에서 ‘매우 있다’(7)의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 집단과 친구 집단에서 $\alpha = .72 \sim .73$ 이었다.

통제는 ‘부모님은 내가 지시 받은 대로만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등과 같이 부모

의 통제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7)의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 8개 문항 중에서 역산문항이 3개 포함되었다. $\alpha = .72 \sim .75$ 사이의 값을 나타내었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995a)가 제작한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자기조절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을 측정변인으로 하였다. 자기조절효능감은 ‘당신은 ’욱‘하는 성질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습니까?’와 같이 일반적인 자기조절의 정도를 질문하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다른 흥미 있는 일들이 있어도, 당신은 얼마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와 같이 구체적으로 학습에 초점을 둔 자기조절의 정도를 측정하는 11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답지는 ‘전혀 잘할 수 없다’(1)에서 ‘매우 잘할 수 있다’(7)의 7점 척도였으며, 청소년과 친구 집단에서 이 두 측정변인의 신뢰도는 $\alpha = .79 \sim .88$ 이었다.

일탈행동은 사소한 일탈과 심각한 일탈을 측정하는 두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의 사소한 일탈로는 담배를 얼마나 자주 피우는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성인비디오를 얼마나 보는지, 성인 잡지나 성인 만화를 얼마나 보는지, 돈내기 도박을 얼마나 하

표 2. 측정변인의 문항구성과 Cronbach α 신뢰도

측정변인		문항 수	청소년	친구
부모자녀관계	갈등	8	.73	.72
	통제	8	.75	.72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	9	.79	.80
	자기조절학습효능감	11	.88	.87
일탈행동	사소한 일탈	5	.78	.78
	심각한 일탈	5	.61	.57

는지를 질문하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심각한 일탈로는 남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가출해 본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싸울 때 폭력을 사용한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가입한 씨클의 회원들이 폭력을 사용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이성과 성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질문하는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청소년과 친구 집단에서 사소한 일탈의 신뢰도는 $\alpha = .78$ 이었으나, 심각한 일탈은 $\alpha = .57 \sim .61$ 로 약간 낮은 값을 보였다.

실시 및 분석 방법

5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허락과 협조를 받아 질문지가 실시되었다. 수업시간에 교사는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연구자가 연구보조원과 함께 직접 교실에 들어가서 질문지 실시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반드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질문지를 실시하는 즉시 연구자가 회수하여 갖고 가기 때문에, 학교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하였다. 또한 생활지도나 평가에 전혀 연결되지 않으므로, 성실히 응답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질문지에 응답한 개인 정보는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로는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를 실시하는 시간동안 학교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오지 않음은 물론이고 복도에도 접근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고 교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연구자가 직접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교사가 함께 또는 근처에 있으면 응답자들이 혹시라도 교사가 이 질문지의 결과에 대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솔직한 응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질문지에 사소한 일탈행동과 심각한 일탈행동에 대해 응답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그런 조치가 필요하였다. 응답자들이 최대한 안심하고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였으며, 간식과 선물도 나누어 주고, 유모어도 나눔으로써, 짧은 시간이지만 신뢰의 래포가 형성되도록 한 뒤에 질문지 실시를 하였다.

측정변인에 대한 Cronbach α 신뢰도를 검토한 결과, 신뢰도에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앞서, 인문계와 전문계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해야 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학교유형별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가정내 공부방 환경의 차이를 χ^2 검증하고, 학교유형별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일탈행동의 차이를 t -검증 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유형별로 가정의 구조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에서 부모자녀관계 및 청소년들의 심리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토대하여 연구모형의 검증은 인문계와 전문계 고등학생 데이터 각각을 분리하여 이루어졌다. 각각의 데이터로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연구모형에 대한 LISREL 분석을 하였다. LISREL 분석에서는 모형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 계수로서 GFI, AGFI, NFI, RMR 값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증모형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전체효과의 크기를 검토하고,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의 정도를 분류하였다.

학교유형별로 연구모형을 LISREL 분석으로 검증하고 효과분석을 한 결과, 인문계와 전문계 고등학생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므로 두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모형 검증보다는 데이터를 함께 통합된 청소년 모형으로 분석하여 최종 결과를 정리하여 일반화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인문계와 전문계 고등학생 데이터를 통합한 전체 데이터로 다시 측정변인의 상관관계와 LISREL 분석 및 효과분석을 하였다.

결 과

학교유형별 가정환경,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일탈행동의 차이

학교유형별 가정환경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3~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은 부모의 학력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이다. 아버지 학력에 대한 χ^2 검증 결과를 보면,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문계(58.1%)나 전문계(57.7%) 모두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은 점에서 일치하였으나,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인문계는 그 다음으로 대졸(25.1%), 중졸(9.7%), 대학원졸(3.8%)의 순서로 대졸이 전체 응답자의 1/4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전문계는 중졸(23.0%), 초등졸(10.8%), 대졸(7.8%)의 순서로서, 중졸이 거의 1/4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어머니 학력에 대한 χ^2 검증 결과도 아버지 학력과 마찬가지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인문계의 경우에 고졸(61.1%)은 중졸(23.1%)의 거의 3배에 가까운 비율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졸(8.9%)이 거의 10%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고, 초등졸(6.2%)은 5%를 약간 넘었다. 그러나 전문계의 경우는 고졸(40.2%)이나 중졸(39.1%)이 각각 40% 내외로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초등졸(19.2%)로서, 20% 가까운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졸(1.3%)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표 3의 결과로 미루어보아, 인문계와 전문계 학생들의 부모는 학력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인문계 학생들의 부모가 전문계 학생들의 부모보다 학력수준이 훨씬 높았다.

표 4는 학교유형별 부모의 직업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이다. 아버지 학력의 경우, χ^2 값은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3. 학교유형별 부모의 학력 χ^2 검증

부 학력	학교유형별		전체 (%)	모 학력	학교유형별		전체 (%)
	인문계(%)	전문계(%)			인문계(%)	전문계(%)	
초등졸	29(3.2)	50(10.8)	79(5.8)	초등졸	56(6.2)	90(19.2)	146(10.6)
중졸	88(9.7)	106(23.0)	194(14.2)	중졸	210(23.1)	183(39.1)	393(28.5)
고졸	525(58.1)	266(57.7)	791(58.0)	고졸	556(61.1)	188(40.2)	744(54.0)
대졸	227(25.1)	36(7.8)	263(19.3)	대졸	81(8.9)	6(1.3)	87(6.3)
대학원졸	34(3.8)	3(.7)	37(2.7)	대학원졸	7(.8)	1(.2)	8(.6)
	903(100.0)	461(100.0)	1364(100.0)		910(100.0)	468(100.0)	1378(100.0)

$\chi^2=126.83^{***}(p < .001), df=4$

$\chi^2=132.84^{***}(p < .001), df=4$

인문계에서는 자영업(34.5%)이 30% 이상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22.3%)과 기술직(21.4%)이 20% 이상의 비율을,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관리직(10.9%)이 10% 이상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전문계에서는 기술직(37.7%)이 30% 이상을 나타내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26.6%)이 20% 이상이었으며, 사무직(17.6%)이 세 번째이고, 네 번째로는 단순노동(5.4%)이 많았다.

어머니의 직업을 χ^2 검증한 결과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문계(54.1%)나 전문계(54.3%) 모두 전업주부가 1/2 이상을 차지했으며,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취업주부의 경우에 직업분포에서 차이가 있었다. 인문계(24.8%)나 전문계(27.4%) 모두 자영업이 2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인문계에서는 그 다음으로 사무직(10.0%)이 많은 반면에, 전문계에서는 기술직(9.4%)이 많은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직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볼 때, 학

력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유형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문계 학생들의 부모가 전문계 학생들의 부모보다 직업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

표 5는 학교유형별 가정 내에서 공부방 환경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χ^2 검증 결과는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문계 고등학생은 혼자 사용(64.7%)이 형제와 함께 사용(31.0%)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없음(4.3%)인 경우는 5% 미만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전문계 고등학생은 혼자 사용(45.5%)이나 형제와 함께 사용(42.4%)이 모두 40% 이상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으며, 없음(12.2%)도 10% 이상이 됨으로써, 전문계 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공부방이 없었다. 전문계 고등학생 중에 공부방이 없는 비율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세 배 정도였다.

표 3~표 5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교유형별로 가정환경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표 4. 학교유형별 부모의 직업 χ^2 검증

부 직업	학교유형별			모 직업	학교유형별		
	인문계(%)	전문계(%)	전체 (%)		인문계(%)	전문계(%)	전체 (%)
단순노동	21(2.4)	25(5.4)	46(3.4)	전업주부	464(54.1)	244(54.3)	708(54.2)
숙련직	26(3.0)	32(7.0)	58(4.3)	숙련직	5(.6)	3(.7)	8(.6)
기술직	188(21.4)	173(37.7)	361(27.0)	기술직	49(5.7)	42(9.4)	91(7.0)
자영업	303(34.5)	122(26.6)	425(31.8)	자영업	213(24.8)	123(27.4)	336(25.7)
사무직	196(22.3)	81(17.6)	277(20.7)	사무직	86(10.0)	32(7.1)	118(9.0)
전문직	35(4.0)	6(1.3)	41(3.1)	전문직	25(2.9)	4(.9)	29(2.2)
관리직	96(10.9)	15(3.3)	111(8.3)	관리직	13(1.5)	1(.2)	14(1.1)
고위전문직	14(1.6)	5(1.1)	19(1.4)	고위전문직	3(.3)	-	3(.2)
계	879(100.0)	459(100.0)	1338(100.0)	계	858(100.0)	449(100.0)	1307(100.0)

$\chi^2=87.04^{***}(p<.001), df=7$

$\chi^2=20.76^{**}(p=<.01), df=7$

표 5. 학교유형별 가정내 공부방 환경 χ^2 검증

	학교유형별		전체 (%)
	인문계(%)	전문계(%)	
없음	39 (4.3)	59 (12.2)	98 (7.0)
형제와 함께 사용	283 (31.0)	205 (42.4)	488 (35.0)
혼자 사용	590 (64.7)	220 (45.5)	810 (58.0)
계	912 (100.0)	484 (100.0)	1396 (100.0)

$\chi^2=59.98^{***}$ ($p<.001$), $df=2$

는 결론이 가능하다. 인문계 학생의 부모들이 전문계 학생의 부모에 비해 학력도 높았고, 직업의 사회적 지위도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나 어머니 집단에서 모두 일치하였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공부방 환경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인문계 학생들이 혼자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전문계 학생들은

형제와 함께 사용하거나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만이 아니라 가정 내의 물리적 환경에서도 전문계 고등학생들이 훨씬 열악한 여건에 있었다.

표 6은 학교유형별로 이 연구의 측정변인 차이를 t -검정한 결과이다. 부모자녀관계를 보면, 부모 갈등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

표 6. 학교유형별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일탈행동의 차이 t -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N	M	SD	t
부모 갈등	인문계	913	3.84	1.10	-4.37 ^{***}
	전문계	481	4.11	1.12	
부모 통제	인문계	912	4.29	.97	2.04 [*]
	전문계	478	4.18	.91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인문계	911	3.64	1.01	5.61 ^{***}
	전문계	484	3.32	.98	
자기조절효능감	인문계	910	5.46	.95	4.37 ^{***}
	전문계	482	5.20	1.11	
사소한 일탈	인문계	903	2.09	.88	-3.11 ^{**}
	전문계	471	2.26	.99	
심각한 일탈	인문계	903	1.48	.54	-3.37 ^{***}
	전문계	468	1.60	.66	

* $p<.05$, ** $p<.01$, *** $p<.001$

($p < .001$)를 보였는데, 인문계(M=3.84)보다 전문계(M=4.11)의 평균이 더 높았다. 부모 통제는 인문계(M=4.29)가 전문계(M=4.18)보다 근소하게 평균이 더 높았다($p < .05$). 그러므로 전문계 학생들이 부모와 갈등의 정도는 훨씬 높았으며,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인문계 학생들의 부모가 전문계 학생들의 부모보다 약간 더 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자기조절효능감 모두 학교유형에 따라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의 경우에 인문계(M=3.64)는 전문계(M=3.32)보다 높은 평균, 자기조절효능감도 인문계(M=5.46)가 전문계(M=5.20)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므로 인문계 학생들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나 자기조절효능감이 더 높았다.

청소년 일탈행동의 하위변인으로 사소한 일탈은 $p < .01$ 수준에서, 심각한 일탈은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유형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사소한 일탈에서 전문계(M=2.26)는 인문계(M=2.09)보다, 심각한 일탈에서도 전문계(M=1.60)는 인문계(M=1.48)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따라서 사소한 일탈행동이든 심각한 일탈행동이든 모두, 전문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친구 일탈행동, 청소년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인문계

표 4~표 6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교유형별로 가정환경, 부모자녀관계, 자기효능감, 일탈행동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인문계 학생들의 부모가 전문계 학생들의 부

모보다 학력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전문계 학생들이 부모와 갈등이 더 심했으며, 자녀에 대한 통제는 인문계 학생들의 부모가 약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문계 학생들의 가정 내 공부방 여건이 전문계 학생들보다 더 좋음으로써, 가정의 물리적 환경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은 인문계 학생들이 더욱 높았으며, 일탈행동은 전문계 학생들이 사소한 일탈이든 심각한 일탈이든 더 많이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학교유형별로 물리적 가정환경이나 부모자녀관계 및 심리 행동특성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전문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일탈행동을 현저하게 더 많이 하였다.

이 연구의 모형(그림 1 참고)은 청소년 일탈행동을 최종 종속변인으로 하고, 이러한 일탈행동에 미치는 환경적 심리적 변인들에 관심을 갖고, 환경변인으로서 청소년 본인의 부모자녀관계만이 아니라, 인적 환경으로서 친구의 영향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 4~표 6의 결과는 연구모형(그림 1)의 검증에 있어, 질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는 학교유형별 자료를 각각 분석할 필요를 시사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인문계와 전문계 고등학생별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로 한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친구가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가 표 7~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은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의 사소한 일탈행동은 친구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낮은 부적 상관($r = -.07$)이, 친구의 자기조절효능감과는 높은 부적 상관($r = -.29$)이 있었다. 친구의 사소한 일탈행동($r = .51$) 및 심

표 7.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분석: 인문계 고등학생 집단

(N=91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친구: 부모 갈등	1.00											
② 친구: 부모 통제	.46***	1.00										
③ 친구: 자기조절학습효능감	-.18***	-.08*	1.00									
④ 친구: 자기조절효능감	-.26***	-.17***	.38***	1.00								
⑤ 친구: 사소한 일탈행동	.21***	.13***	-.13***	-.41***	1.00							
⑥ 친구: 심각한 일탈행동	.14***	.12***	-.09**	-.35***	.61***	1.00						
⑦ 부모 갈등	.09**	.04	-.07*	-.20***	.13***	.13***	1.00					
⑧ 부모 통제	.02	.03	-.04	-.11**	.10**	.13***	.46***	1.00				
⑨ 자기조절학습효능감	-.07*	-.04	.14***	.16***	-.10**	-.09**	-.25***	-.13***	1.00			
⑩ 자기조절효능감	-.13***	-.06	.11***	.40***	-.23***	-.25***	-.32***	-.22***	.38***	1.00		
⑪ 사소한 일탈행동	.06	.06	-.07*	-.29***	.51***	.45***	.22***	.11***	-.16***	-.43***	1.00	
⑫ 심각한 일탈행동	.07*	.08*	-.09*	-.26***	.40***	.43***	.18***	.14***	-.11***	-.40***	.65***	1.00

* $p < .05$, ** $p < .01$, *** $p < .001$

각한 일탈행동($r=.45$)과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모 갈등과는 정적 상관($r=.22$)이, 부모 통제와는 약한 정적 상관($r=.11$)이 있었다. 청소년 자신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는 낮은 부적 상관($r=-.16$)이, 자기조절효능감과는 매우 높은 부적 상관($r=-.43$)이 있었다.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이 다른 측정변인들과 보이는 상관관계 패턴은 사소한 일탈행동의 경우와 거의 일치하였다. 관계의 방향도 완전히 일치하였으며, 관계의 강도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심각한 일탈행동과 사소한 일탈행동의 상관계수는 $r=.65$ 로서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청소년의 자기조절효능감은 친구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낮은 정적 상관($r=.11$)이 있었고, 친구의 자기조절효능감과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r=.40$)을 보였다. 친구의 사소한 일탈행동($r=-.23$) 및 친구의 심각한 일탈행동($r=-.25$),

과는 부적 관계에 있었다. 부모 갈등($r=-.32$) 및 부모 통제($r=-.22$)와도 부적 상관이 있었다. 자신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는 $r=.38$ 로 높은 정적 상관이었다.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다른 측정변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자기조절효능감과 다른 측정변인들과의 상관의 방향과 모두 일치하였다. 단지 상관의 강도만 약간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림 2는 그림 1의 연구모형을 인문계 고등학생 대상으로 LISREL 검증한 결과이다. 모형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GFI=.97, AGFI=.95, NFI=.94로서 모두 .90이 훨씬 넘었으며, RMR=.05였다. 따라서 모형적합도가 매우 양호하였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일탈행동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부모자녀관계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해 $P=-.30$ 의 부적

경로계수를, 자기효능감에서 일탈행동으로 $P = -.33$ 의 부적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부모와 갈등적인 관계에 있고 부모의 통제가 심할수록 청소년의 자기조절효능감이나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이 감소되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감소될수록 사소한 일탈행동이나 심각한 일탈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친구 경우를 보면, 친구의 부모자녀관계가 친구의 자기효능감에 대해 $P = -.34$ 의 부적 경로계수를, 친구 자기효능감에서 친구 일탈행동으로 $P = -.44$ 의 매우 높은 부적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청소년 경우와 동일하였다. 그런데 친구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친구의 일탈행동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P = .12$ 로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이 경로계수가 유의($p <$

.01)했으나, 다른 경로계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그러므로 친구의 경우에도 친구의 부모자녀관계가 갈등적이고 통제 적일수록 친구의 자기효능감이 낮고, 이렇게 자기효능감이 낮은 친구들일수록 일탈행동을 현저하게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경우와 마찬가지로 패턴이었다.

단지 친구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일탈행동으로 경로가 낮은 수준이었으나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청소년에서는 이 변인들 간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친구는 동일한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부모자녀관계에서 청소년 자기효능감으로, 청소년 자기효능감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으로 각각 유의한 영향이 있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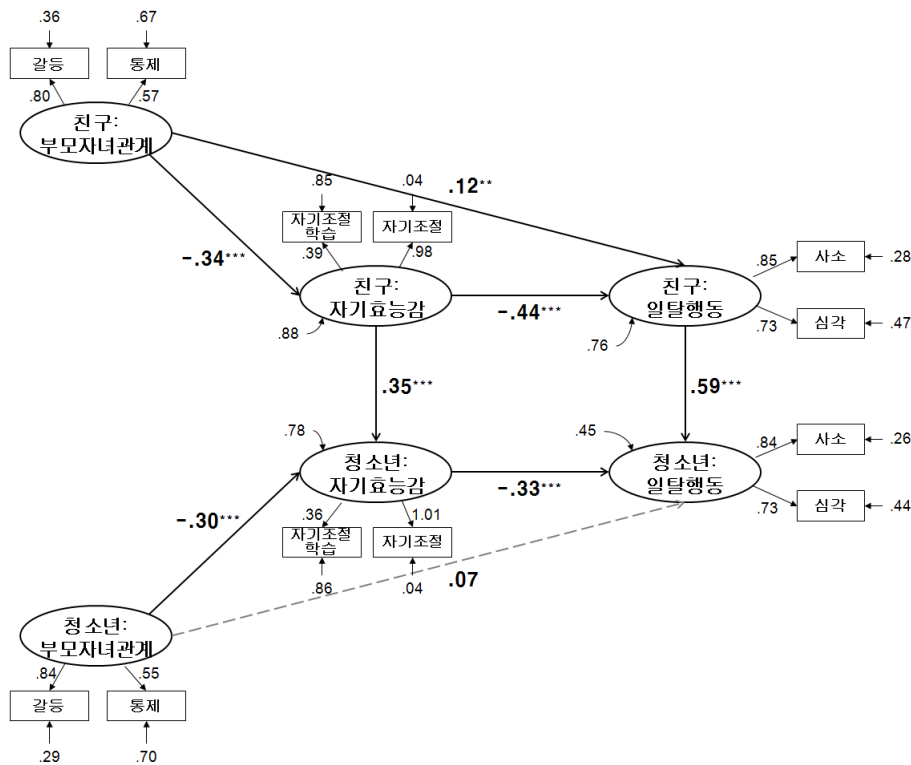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LISREL 검증: 인문계 고등학교 집단 (N=915)

때문에, 비록 청소년 부모자녀관계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게다가 친구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친구의 일탈행동으로의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과 친구 집단이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는 해석에 무리가 없다.

친구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자기효능감에 대해 $P=.35$ 의 정적인 경로계수를, 친구 일탈행동은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해 $P=.59$ 의 매우 높은 정적인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친구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청소년도 자기효능감이 높고, 친구가 일탈행동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도 일탈행동을 많이 하였다.

표 8은 그림 2의 인문계 고등학생 대상 검증모형을 효과분석한 결과이다.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59로 전체효과도 .59인데,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모든 변인들의 전체효과 중에서 가장 효

과크기가 크다. 따라서 친구 일탈행동이 청소년 일탈행동에 가장 영향력이 컸다.

두 번째로 큰 효과계수는 친구 자기효능감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으로 연결되는 효과로서, 효과크기는 -.38이었다. 직접효과는 없고 간접효과가 -.38이었는데, 이는 친구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이 큼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큰 전체효과는 청소년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효과였다. 간접효과는 없고 전체효과만 -.33으로서 부적 효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일탈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전체효과가 .20이었다. 여기에서는 직접효과는 없고 모두 간접효과였다. 따라서 친구가 부모와 갈등적인 관계 등 문제가 있을수록 그 친구는 자기효능감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탈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표 8. 검증모형의 효과분석: 인문계 고등학생 집단 (N=915)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친구: 부모자녀관계 → 친구: 자기효능감	-.34 (- 8.20)***	-	-.34 (- 8.20)***
→ 친구: 일탈행동	.12 (2.60)**	.15 (5.62)***	.27 (6.01)***
→ 청소년: 자기효능감	-	-.12 (- 5.76)***	-.12 (- 5.76)***
→ 청소년: 일탈행동	-	.20 (6.47)***	.20 (6.47)***
친구: 자기효능감 → 친구: 일탈행동	-.44 (- 7.34)***	-	-.44 (- 7.34)***
→ 청소년: 자기효능감	.35 (7.96)***	-	.35 (7.96)***
→ 청소년: 일탈행동	-	-.38 (- 7.70)***	-.38 (- 7.70)***
친구: 일탈행동 → 청소년: 일탈행동	.59 (14.16)***	-	.59 (14.16)***
청소년: 부모자녀관계 → 청소년: 자기효능감	-.30 (- 7.96)***	-	-.26 (- 7.96)***
→ 청소년: 일탈행동	.07 (1.83)	.10 (4.76)***	.17 (4.54)***
청소년: 자기효능감 → 청소년: 일탈행동	-.33 (- 5.84)***	-	-.33 (- 5.84)***

()는 t값

* $p < .05$, *** $p < .001$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친구의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17로서 정적인 효과계수를 나타내었다. 직접효과가 .07이고 간접효과가 .10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직접효과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지만, 간접효과는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함으로써, 전체효과도 $p < .001$ 수준의 유의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부모와 갈등적이고 통제를 경험하며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낮은 자기효능감은 결과적으로 일탈행동을 유발하며, 동시에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직접 일탈행동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 일탈행동에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8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변인들 간의 모든 전체효과들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해 친구 일탈행동의 영향이 가장 강력하였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 자기효능감의 부적인 직접효과가 두 번째로 큰 효과크기를 나타냈다. 간접효과는 친구의 자기효능감이 부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그 다음으로 친구의 부모자녀관계가 정적인 간접효과를, 마지막으로 청소년 부모자녀관계 순서로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친구가 일탈행동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일탈행동을 많이 했다. 그리고 친구가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친구가 부모와 부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수록, 청소년의 일탈행동 증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친구 일탈행동, 청소년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전문계 고

표 9는 전문계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의 사소한 일탈행동은 친구 부모의 통제($r = .17$)와 낮지만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친구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는 무상관이었고, 친구의 자기조절효능감과는 높은 부적 상관($r = -.37$)이 있었다. 친구의 사소한 일탈행동($r = .55$) 및 심각한 일탈행동($r = .49$)과도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모 갈등($r = .13$) 및 부모 통제($r = .19$)와 낮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청소년 자신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는 낮은 부적 상관($r = -.15$)이 있었지만, 자기조절효능감과는 매우 높은 부적 상관($r = -.47$)이 있었다.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도 사소한 일탈행동과 마찬가지로 패턴을 보였다. 상관관계의 방향은 동일하였으며, 상관계수도 같거나 비슷하였다.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과 사소한 일탈행동은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r = .70$)를 보였다.

청소년의 자기조절효능감은 친구의 자기조절효능감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r = .37$)이 있었으며, 친구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는 무상관이었다. 친구의 사소한 일탈행동($r = -.37$) 및 친구의 심각한 일탈행동($r = -.33$)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 갈등($r = -.10$) 및 부모 통제($r = -.15$)와도 낮지만 부적 상관이 있었다. 자기조절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는 높은 정적 상관($r = .30$)이 있었다.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 다른 측정변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자기조절효능감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 상관의 방향은 일치하였으나, 상관의 강도가 낮은 편이었다.

표 9.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분석: 전문계 고등학생 집단

(N=48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친구: 부모 갈등	1.00										
② 친구: 부모 통제	.37***	1.00									
③ 친구: 자기조절학습효능감	-.12**	-.02	1.00								
④ 친구: 자기조절효능감	-.14**	-.14**	.29***	1.00							
⑤ 친구: 사소한 일탈행동	.15***	.16***	-.19***	-.48***	1.00						
⑥ 친구: 심각한 일탈행동	.07	.19***	-.16***	-.40***	.70***	1.00					
⑦ 부모 갈등	.04	.06	-.06	-.08	.11*	.09*	1.00				
⑧ 부모 통제	.09*	.02	.03	-.10*	.16***	.18***	.44***	1.00			
⑨ 자기조절학습효능감	.01	.07	.12***	.17***	-.11*	-.10*	-.07	-.06	1.00		
⑩ 자기조절효능감	-.10*	-.08	.06	.37***	-.37***	-.33***	-.10*	-.15***	.30***	1.00	
⑪ 사소한 일탈행동	.08	.17***	-.05	-.37***	.55***	.49***	.13**	.19***	-.15**	-.47***	1.00
⑫ 심각한 일탈행동	.07	.17***	-.05	-.29***	.50***	.45***	.12*	.21***	-.13**	-.38***	.70***

* $p < .05$, ** $p < .01$, *** $p < .001$

전문계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LISREL 검증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GFI=.97, AGFI=.95, NFI=.95로 모두 .90이 넘었으며, RMR=.05로 적합도가 매우 양호하였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부적 경로계수($P = -.12$)를, 자기효능감에서 일탈행동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P = -.30$ 의 높은 부적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청소년 부모자녀관계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는 $P = .11$ 로서 유의도 수준이 낮았다($p < .05$). 이러한 결과로 보아 부모와의 갈등이나 부모의 통제와 같이 부모자녀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감소되고, 낮은 자기효능감은 청소년 일탈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구의 부모자녀관계는 친구의 자기효능감

에 대해 $P = -.32$ 의 부적 경로계수를, 친구 자기효능감에서 친구 일탈행동으로는 $P = -.68$ 의 매우 높은 부적 경로계수를 나타내었다. 친구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친구의 일탈행동으로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P = .09$, $p > .05$). 그러므로 친구의 경우에도 친구의 부모자녀관계가 갈등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친구의 자기효능감이 낮고, 낮은 자기효능감은 일탈행동의 증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청소년에서의 경향과 동일하였다.

단, 친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일탈행동으로의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소년에서는 이 변인들 간에 비록 $p < .05$ 수준이지만 유의한 경로계수였다는 차이가 있었다. 비록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 반응패턴은 청소년과 친구에서 마찬가지로였다. 친구 부모자녀관계에서 친구 자기효능감으로,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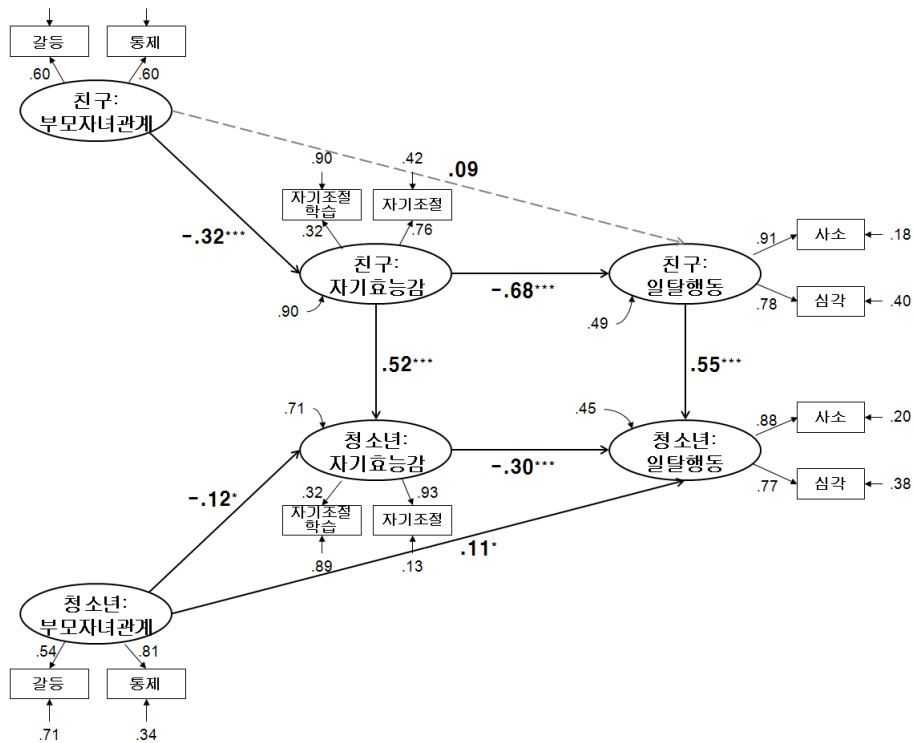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의 LISREL 검증: 전문계 고등학생 집단 (N=484)

자기효능감에서 친구 일탈행동으로 각각 유 의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친구 부모자녀관계에서 친구 일탈행동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그리고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청소년의 일탈행동으로 매우 낮은 경로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청소년과 친구 집단이 유사한 패턴임을 알 수 있다.

친구 자기효능감은 청소년 자기효능감에 대해 $P=.52$, 친구 일탈행동은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해 $P=.55$ 의 매우 높은 정적인 경로계수를 보였다. 따라서 친구가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친구의 일탈행동도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서, 친구가 일탈행동

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도 일탈행동을 많이 하였다.

표 10은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효과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 일탈행동에 가장 전체효과가 큰 변인은 친구의 일탈행동이었다. 전체효과가 .55로서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직접효과였다. 따라서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컸다.

친구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거의 친구 일탈행동의 전체효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전체효과가 -.53으로서, 직접효과는 없고 모두 간접효과였다. 친구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 10. 검증모형의 효과분석: 전문계 고등학생 집단⁴⁾

(N=484)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친구: 부모자녀관계 → 친구: 자기효능감	-.32 (- 4.13) ^{***}	-	-.32 (- 4.13) ^{***}
→ 친구: 일탈행동	.09 (1.26)	.22 (4.73) ^{***}	.30 (4.59) ^{***}
→ 청소년: 자기효능감	-	-.17 (- 3.81) ^{***}	-.17 (- 3.81) ^{***}
→ 청소년: 일탈행동	-	.22 (4.73) ^{***}	.22 (4.73) ^{***}
친구: 자기효능감 → 친구: 일탈행동	-.68 (- 7.53) ^{***}	-	-.68 (- 7.53) ^{***}
→ 청소년: 자기효능감	.52 (7.72) ^{***}	-	.52 (7.72) ^{***}
→ 청소년: 일탈행동	-	-.53 (- 7.63) ^{***}	-.53 (- 7.63) ^{***}
친구: 일탈행동 → 청소년: 일탈행동	.55 (9.46) ^{***}	-	.55 (9.46) ^{***}
청소년: 부모자녀관계 → 청소년: 자기효능감	-.12 (- 2.22) [*]	-	-.12 (- 2.22) [*]
→ 청소년: 일탈행동	.11 (2.21) [*]	.04 (1.92)	.14 (2.85) ^{**}
청소년: 자기효능감 → 청소년: 일탈행동	-.30 (- 3.62) ^{***}	-	-.30 (- 3.62) ^{***}

()는 t값

* $p < .05$, ** $p < .01$, *** $p < .001$

친구의 자기효능감은 친구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주고,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친구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크게 작용하였다.

청소년 자기효능감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세 번째로 컸다. 전체효과 -.30은 모두 직접효과로서 간접효과는 없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더욱 일탈행동을 한다는 의미이다.⁴⁾

친구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전체효과는 .22로서, 모두 간접효과였다. 따라서 친구가 부모와 문제가 클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일탈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친구의 낮은 자기효능감과 높은 일탈행

동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간접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14로서, 직접효과가 .11이고 간접효과가 .04였다.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직접효과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전체효과도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부모와 갈등적이고 통제를 경험하며 부정적인 관계를 가질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표 10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 부모자녀관계에서 청소년 자기효능감으로 전체효과가 $p < .05$ 수준이고, 청소년 부모자녀관계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으로 전체효과가 $p < .01$ 수준인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전체효과들이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효과계수들

4) 표 10의 효과계수들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기록한 값들이며, output에서는 친구: 부모자녀관계 → 친구: 일탈행동의 직접효과 .085, 간접효과 .218, 전체효과 .304이고, 청소년: 부모자녀관계 → 청소년: 일탈행동의 직접효과 .107, 간접효과 .037, 전체효과 .144임.

을 볼 때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해 친구의 일탈행동이 가장 큰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짐으로써, 친구가 일탈행동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이 일탈행동을 많이 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관계가 갈등적이거나 통제가 많을수록, 청소년이 일탈행동을 많이 하였다. 친구의 자기효능감과 친구의 부모자녀관계도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효과분석을 한 표 8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친구 일탈행동, 청소년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전체

이상에서 인문계와 전문계 고등학생 각각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상관관계분석(표 7, 표 9 참고)이나, LISREL 분석(그림 2, 그림 3 참고), 효과분석(표 8, 표 10) 결과가 전반적으로 일치하였다. 물론 LISREL 분석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은 청소년 부모자녀관계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으로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고, 전문계 고등학생은 친구 부모자녀관계에서 친구 일탈행동으로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유의한 경우도 경로계수가 매우 낮고 비슷한 값을 보이고 있다. 효과분석에서 인문계나 전문계 고등학생 모두, 그 변인들에서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아도 간접효과가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여, 전체효과가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문계나 전문계 고등학생의 검증모형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인문계와 전문계 고등학생 대상의 검증모형을 별도로 분석하기보다는, 고등학생의 일탈행동 모형을 전체 자료로 검증해도 무

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11은 인문계와 전문계 고등학생 자료를 모두 합해서 총 1,399명의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이다.

청소년의 사소한 일탈행동은 친구의 자기조절효능감과 높은 부적 상관($r = -.33$)이 있었고, 친구의 사소한 일탈행동($r = .53$) 및 심각한 일탈행동($r = .47$)과는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모 갈등($r = .20$)이나 부모 통제($r = .13$)와 비록 낮지만 정적 상관이 있었다.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는 낮은 부적 상관($r = -.17$)이, 자기조절효능감과는 매우 높은 부적 상관($r = -.45$)이 있었다.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도 이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청소년의 심각한 일탈행동과 사소한 일탈행동은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r = .67$)에 있었다.

청소년의 자기조절효능감은 친구의 자기조절효능감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r = .39$)이 있었으며, 친구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는 낮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친구의 사소한 일탈행동($r = -.29$) 및 친구의 심각한 일탈행동($r = -.29$)과 부적 상관을, 부모 갈등($r = -.25$) 및 부모 통제($r = -.18$)와도 부적 상관이 있었다. 자기조절효능감과 자기조절학습효능감과는 높은 정적 상관($r = .36$)이 있었다.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효능감도 자기조절효능감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단지 상관계수가 낮았다.

표 11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인문계(표 7 참고)나 전문계(표 9 참고) 고등학생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LISREL 분석 결과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모형적합도는 $GFI = .98$, $AGFI = .96$, $NFI = .95$ 로서 모두 .90이 넘었고, $RMR = .05$ 로서, 매우 양호하였다. 청소년의

표 11.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분석: 전체 집단

(N=1,399)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친구: 부모 갈등	1.00										
② 친구: 부모 통제	.42***	1.00									
③ 친구: 자기조절학습효능감	-.17***	-.05	1.00								
④ 친구: 자기조절효능감	-.22***	-.15***	.36***	1.00							
⑤ 친구: 사소한 일탈행동	.19***	.13***	-.16***	-.45***	1.00						
⑥ 친구: 심각한 일탈행동	.11***	.14***	-.12***	-.38***	.65***	1.00					
⑦ 부모 갈등	.08**	.04	-.09**	-.17***	.13***	.12***	1.00				
⑧ 부모 통제	.04	.03	-.01	-.10***	.12***	.15***	.44***	1.00			
⑨ 자기조절학습효능감	-.05*	.01	.15***	.18***	-.11***	-.11***	-.20***	-.10***	1.00		
⑩ 자기조절효능감	-.13***	-.06*	.10***	.39***	-.29***	-.29***	-.25***	-.18***	.36***	1.00	
⑪ 사소한 일탈행동	.07**	.09***	-.07**	-.33***	.53***	.47***	.20***	.13***	-.17***	-.45***	1.00
⑫ 심각한 일탈행동	.08**	.10***	-.09***	-.28***	.44***	.44***	.17***	.16***	-.13***	-.40***	.67***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자녀관계에서 자기효능감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부적 경로계수($P = -.26, p < .001$)를, 자기효능감에서 일탈행동으로 연결되는 경로는 더 높은 부적 경로계수($P = -.30, p < .001$)를 보였다. 청소년 부모자녀관계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는 경로계수의 값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유의하였다($P = .07, p < .05$). 그러므로 청소년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청소년 일탈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청소년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부모와의 갈등이나 부모의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러한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일탈행동에도 약하지만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친구 부모자녀관계는 친구 자기효능감에 대해 부적 경로계수($P = -.34, p < .001$)를, 친구 자기효능감은 친구 일탈행동에 대해 매우 높은 부적 경로계수($P = -.53, p < .001$)를 나타내었다.

친구 부모자녀관계에서 친구 일탈행동으로는 낮은 경로계수이지만 유의한 값($P = .09, p < .05$)을 보였다. 그러므로 친구의 경우에도 부모자녀관계가 갈등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친구의 자기효능감이 낮고, 낮은 자기효능감은 일탈행동을 크게 유발하였다.

친구 자기효능감은 청소년 자기효능감에 대해 매우 높은 정적인 경로계수($P = .42, p < .001$)를, 친구 일탈행동은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해 매우 높은 정적인 경로계수($P = .58, p < .001$)를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친구가 낮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낼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도 영향을 받아 낮아졌으며, 친구가 일탈행동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도 일탈행동을 많이 하였다.

그림 4의 검증모형을 효과분석한 결과가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 일탈행동은 친구 일탈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전체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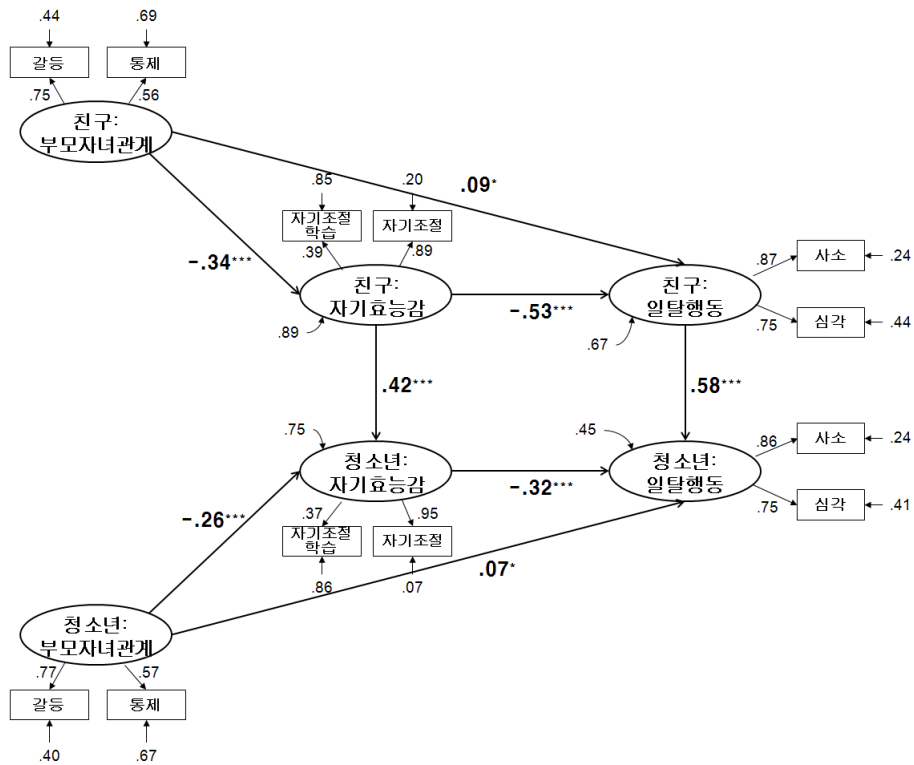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형의 LISREL 검증: 전체 집단 (N=1,399)

과가 $.58(p < .001)$ 이었다. 간접효과는 없고 모두 직접효과로 구성되었다.

친구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전체효과도 $-.45(p < .001)$ 로서, 친구 일탈행동보다는 낮았지만 매우 강력하였다. 여기에서 직접효과는 없고 모두 간접효과였다. 부적 효과계수를 나타내므로, 친구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친구의 일탈행동이 증가하고, 증가된 친구 일탈행동은 청소년 일탈행동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자기효능감의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전체효과는 $-.32(p < .001)$ 로서 모두 직접효과였다. 부적인 효과계수를 나타내므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더욱 일탈행동을 한

다는 의미이다.

친구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전체효과는 $.20(p < .001)$ 으로서, 모두 간접효과였다. 따라서 친구가 부모와 문제가 많을수록 친구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일탈행동을 많이 하는데, 친구의 낮은 자기효능감과 높은 일탈행동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증가시키므로, 정적인 간접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일탈행동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15(p < .001)$ 로서, 다른 변인들에 비해 전체효과가 낮았지만, 여전히 매우 유의한 값으로 확인되었다. 작은 효과계수이지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이 부모와 갈등적 관계에 있고 부

표 12. 연구모형의 효과분석: 전체 집단 (N=1,399)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친구: 부모자녀관계 → 친구: 자기효능감	-.34 (- 8.93) ^{***}	-	-.34 (- 8.93) ^{***}
→ 친구: 일탈행동	.09 (2.44) [*]	.18 (7.10) ^{***}	.27 (7.30) ^{***}
→ 청소년: 자기효능감	-	-.14 (- 7.18) ^{***}	-.14 (- 7.18) ^{***}
→ 청소년: 일탈행동	-	.20 (7.92) ^{***}	.20 (7.92) ^{***}
친구: 자기효능감 → 친구: 일탈행동	-.53 (-10.74) ^{***}	-	-.53 (-10.74) ^{***}
→ 청소년: 자기효능감	.42 (11.21) ^{***}	-	.42 (11.21) ^{***}
→ 청소년: 일탈행동	-	-.45 (-11.16) ^{***}	-.45 (-11.16) ^{***}
친구: 일탈행동 → 청소년: 일탈행동	.58 (17.54) ^{***}	-	.58 (17.54) ^{***}
청소년: 부모자녀관계 → 청소년: 자기효능감	-.26 (- 7.90) ^{***}	-	-.26 (- 7.90) ^{***}
→ 청소년: 일탈행동	.07 (2.26) [*]	.08 (5.43) ^{***}	.15 (5.05) ^{***}
청소년: 자기효능감 → 청소년: 일탈행동	-.32 (- 7.28) ^{***}	-	-.32 (- 7.28) ^{***}

()는 t값

* $p < .05$, *** $p < .001$

모의 통제를 경험 할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나아가서 일탈행동에 원인이 되었다.

표 12에서 모든 변인들의 전체효과 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였다.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 일탈행동에 가장 강력한 효과계수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부모자녀관계의 순서로 직접효과가 컸다. 간접효과는 친구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친구의 부모자녀관계의 순서였다. 따라서 친구가 일탈행동을 많이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관계에 갈등이 있고 통제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증가하였다. 또한 친구의 자기효능감이 낮고, 친구가 부모와 갈등하거나 통제를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전체효과의 크기 순서는 인문계(표 8 참고)와 전문계(표 10 참고) 고등학생 집단

을 각각 분석하였을 때와 동일하였다.

논의 및 결론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

이 연구에서는 친구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동시에 청소년의 부모자녀 갈등과 부모통제 및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었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의미 있게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모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만 연구모

형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Bandura (1995b)가 제한한 도덕적 이탈과 같은 변인들이 포함된다면 훨씬 심도 있는 일탈행동 형성의 메커니즘을 밝혀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심리적 매개변인으로 도덕적 이탈 변인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설명변량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 의미 있는 다양한 예언변인들이 포함되어, 청소년 일탈행동을 예측하는 연구모형이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져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탈행동 구인을 측정하는 변인인 사소한 일탈과 심각한 일탈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최근 청소년 일탈의 내용들을 반영하는 문항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못한 점이다. 예컨대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일탈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은 오래 전에 제작된 것이라, 그러한 문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 포함된 사소한 일탈행동의 내용들, 즉 흡연, 음주, 성인 비디오, 성인 잡지 만화, 돈내기 도박이라든가, 심각한 일탈행동의 내용들, 즉 도둑질, 가출, 폭력, 폭력써클 경험, 성경험이 현재에도 여전히 청소년 일탈행동의 내용들로 타당하지만, 현대 사회의 감각에 맞는 적절한 내용들이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 일탈행동 변인의 측정과 관련된 또 하나의 제한점으로는, 심각한 일탈행동의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값($a = .57 \sim .61$)을 나타내었다는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친구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각 응답자들로 하여금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청소년 질문지를 가장 친한 친구의 질문지와 짝을 이

루도록 연구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혀야만 했다. 물론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퇴학도 될 수 있는 자신의 심각한 일탈행동을 솔직하게 그대로 다 드러내고 반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심각한 일탈행동을 측정할 신뢰도가 낮기는 하지만 $a = .60$ 전후로서 아쉽게는 해도 연구결과의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설계에서도 심각한 일탈행동 변인을 보다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이 연구가 넘을 수 없는 제한점으로, 이 연구는 2010년 현재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료가 아니라, 1990년대 중반의 청소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과연 15년 전의 청소년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연구모형이 2010년 현재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야기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제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요즘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맞는 청소년 일탈행동의 내용들로 구성된 질문지를 제작하여 현재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의 양상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일탈의 심리적 메커니즘(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등을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새로이 보완된 측정도구로,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에 대한 연구모형을 누적적으로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청소년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의 중요성

이 연구가 십여 년 전 청소년들을 분석했다는 제한점은 한계로만 그치기보다는 동시에 의미 있는 시사점도 내포한다. 친한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청소년 일탈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관된 원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친구 일탈행동의 영향이 과거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에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에도 강한 영향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앞으로 계속 밝혀 나간다면, 이 연구 결과는 청소년 일탈행동과 관련하여 시간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친구 일탈행동 영향의 중요성을 밝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지금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연구에서 밝혀진 친구 일탈행동의 영향에 대한 모형을 재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친구의 일탈행동 및 청소년과 친구의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이라는 매우 일부의 예언변인들만 연구모형에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적합도가 대단히 우수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모형을 통해 검증된 결과들은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갖는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통해 여러 결과들이 밝혀졌지만, 가장 의미 있는 결과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친한 친구의 일탈행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토대한다. 친구 일탈행동이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해 너무나 강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의 부모자녀관계나 친구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일탈

행동에 대해 직접효과가 없는데도 간접효과만으로도 큰 전체효과를 나타내었다. 친구의 일탈행동을 통한 간접효과로 인해 친구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본인의 자기효능감보다 청소년 일탈행동에 실제적으로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친구의 일탈행동의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강력한가를 보여준다.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친구 일탈행동의 영향을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로 구분해 본 이러한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또래의 영향이 확인되어 왔다. 그런데 선행연구들(Park & Kim, 2004; 2006)보다 이 연구에서 훨씬 친구의 영향이 강력하게 나타났다. 그 핵심 이유는 이 연구에서는 주변에 있는 막연한 또래로서의 친구집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장 친한 친구의 영향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친한 친구를 매칭 데이터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의 구성이 친한 친구의 영향을 분석하는 의미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친구의 일탈행동이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였다. 김경식과 이현철(2006), 송미경(2006), 이은희, 공수자와 이정숙(2004) 등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김경연과 하영희(2003)의 연구 결과를 보면, 친구의 규칙위반성향이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그런데 친구의 규칙위반행동이 청소년 본인의 도덕적 이탈보다도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한 설명변량이 더 높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전체효과를 비교해 보면, 청소년

년 본인의 자기효능감보다도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효과크기가 훨씬 컸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그림 4, 표 12 참고)의 효과계수들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 볼 때, 그리고 직접효과만이 아니라 간접효과들을 통한 여러 변인들의 전체효과를 고려해 볼 때, 친구의 일탈행동은 원자폭탄과 같은 거대한 폭발력을 갖고, 미래를 향해 건강한 싹을 틔워야 하는 청소년의 삶을 폭파시켜서 일탈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결론 내려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친구의 일탈행동은 원자폭탄이 발사되도록 누르는 하나의 단추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비유될 수 있다.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한 친구 일탈행동의 영향 외에도, 심리적 매개변인으로서 자기효능감이 의미 있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양한 주제의 선행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의 의미 있는 영향력은 누적적으로 밝혀져 왔다. 성취(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나 행복 및 삶의 질(박영신, 김의철, 2009)과 같은 긍정적인 속성의 변인들을 종속변인으로 다룬 연구에서만 아니라, 일탈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속성의 변인을 다룬 이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의 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부모와의 갈등이나 부모의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고, 감소된 자기효능감은 청소년 일탈행동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자

기조절효능감 및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대해 강력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자기효능감의 여러 하위 변인들이 청소년 일탈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9; 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 김의철, 박영신, 1999; 박영신, 김의철, 2001b)과 일치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에서는 상관관계를 통해 단순한 관련 정도나,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을 검토한 정도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LISREL 분석을 통해 낮은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변인임을 명료하게 밝혔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해 자기효능감보다는 효과계수가 낮았지만,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인 부모자녀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기효능감이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일탈행동에 대해 갖는 간접효과가 유의하기 때문에, 전체효과는 상당히 유의하다. 이렇게 간접효과가 유의하다는 사실은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선행연구 결과들(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 박영신, 김의철, 2000; Park, 2000; Park & Kim, 2003)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박영신, 김의철, 박영균, 2010)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결과를 앞에서 논의한 친구의 영향

과 결부하여, 현실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청소년 개인만이 아니라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형성 및 영향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사소한 일탈행동을 청소년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지도하기보다는 이들의 친구관계에 관심을 갖고, 친구관계 역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적절한 지도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도의 노력으로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증진이 효과적임을 이 연구의 결과는 말해 주고 있다. 자기효능감이 낮은 청소년은 쉽게 일탈행동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일탈행동 감소를 위해 심리적으로 자기효능감 증진이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 차원에서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동영상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개발한 자료로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맺는말: 일탈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이 글을 시작하며, 청소년 일탈행동이 사회구성원들의 안녕감을 해치는 심각한 사회불안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제 이 글을 마치며, 일탈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 하려고 한다. 청소년의 사소한 일탈행동이 청소년기에 대부분 경험하는 발달과정의 일부로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러한 사소한 일탈행동의 경험이 나중에 보다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의미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기대와는 달리, 사소한 일탈행동의 누적이 심각한 일탈행동으로 연결(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되어 가고, 청소년

년기의 심각한 일탈행동이 비행이나 범죄로 발전되어, 몇 년 뒤에 성인기로 접어들었을 때 범죄행위를 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김준호, 이순래, 1995)할 가능성이 높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회에 난무하는 성인 범죄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시도가 될 것이다. 청소년 일탈행동의 역동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 개인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사회의 범죄가 감소되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일탈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사회구성원 공동의 관심사로 또한 공동의 과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금명자, 권혜수, 이문희, 이자영과 이수림(2004)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두는 결정을 혼자 한 경우가 64.6%였다.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 중학생들이 학업 중단 후 1년이 되었을 때 보호관찰을 받게 된 경우가 5.5%에서 10.8%로 증가하여, 10명 중에 1명은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되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 고등학생들은 1년 뒤에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5.4%에서 13.4%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되지 않았다고 해도,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증가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이들이 일탈행동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증거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나 준비 없이 학업 중단을 상당수가 혼자서 결정하고, 사회는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비행이 가속화된다는 금명자(2008)의 지적을 뒷받침한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

지 못하면 거의 1년 이내에 비행과 같은 부적응 현상이 급증하여, 결국은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상철(2008)은 청소년 가출의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 적극적 대처전략, 부모의 감시 및 통제, 자기존중감을 제안하고,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청소년 가출을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출 청소년들이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다.

이 연구에서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 일탈행동에 강력한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범법행위를 한 청소년을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소년원에 감금하는 것만이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중대한 시사점을 얻는다. 많은 경우에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검찰의 노력으로 범인을 찾아 구속하면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대부분 생각한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는 그것이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이 아님을 시사하는데 심각성이 있다.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기보다 더욱 잔혹한 범죄 행위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범죄기법들을 배우기도 하고, 미래 공범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연구모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친구의 일탈행동이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강력한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더욱 다양하고 잔인한 범죄경험을 가진 다른 청소년들과 가까운 생활환경은, 더욱 심각한 범죄를 관찰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년원에서 나온 뒤에 같이 수감되었던 다른 소년범들과 새롭

게 형성한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면서 공범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청소년의 부정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일탈행동을 재생산한다는 사실은 박영신과 김의철(2001a)의 개념모형에서 이미 제안되었다. 실제로 일탈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보다 학교에서의 처벌경험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훨씬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박영신, 김의철, 2001b). 그런데 친한 친구의 심각한 일탈행동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일탈행동을 하게 하는 부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누적시키고 가속화시키는 촉진자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밝혔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부정적인 삶이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풀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게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경험을 일탈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긍정의 경험을 긍정적인 모델을 통해서 관찰하고 교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청소년이 일탈행동을 누적함으로써 일탈적 삶의 양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은 중단연구(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일탈의 삶이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친구관계에 관심을 갖고, 친구관계를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일탈행동이나 범죄의 악순환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각종 수감시설에서는 수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수감과정에서의 교정과 교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정과 교화의 프로그램으로 자기조절효능감 증진이 포함된다면 효과적임을, 이 연구의 결과로부터 시사 받을 수 있다. Bandura(1997)는 효능적

신념이 인간 행동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다양한 행동의 영역에서 수많은 증거를 누적하여 왔다. 교정과 교화에 대한 철저하고 체계적인 노력 없이는 오히려 수감과정에서 더 교활하거나 포악한 수범의 범죄를 배우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출소한 뒤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 사회는 공범들로부터 학습한 범죄행동들을 실습하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탈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청소년을 기계적으로 구속 수감하는 일만 치중한다면, 그 결과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이 사회를 더욱 살벌한 얼음판으로 만들고, 계속 구속 수감 시설물 확장을 해도 끊임없는 시설 부족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외면한다고 해서 이 사회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 자녀가 일탈청소년이 아닌 것에 안심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제 역할을 못하는 붕괴된 가정에서 일탈의 삶을 향해 당겨진 활시위 같은 청소년 일탈행동들에 대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따스한 시선으로 관심을 갖고 해법을 공동 모색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09). 경찰백서.
- 곽금주,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문화의 형성요인 탐색: 비행과 우울에 관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111-121.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299-317.
- 금명자, 권혜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학교밖 청소년 욕구조사, 학교 밖 청소년 길 찾기,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50, 21-44.
- 김경식, 이현철 (2006). 청소년의 비행을 낚는 요인. 한국청소년개발원, 제 3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 자료집, 601~621.
- 김경연, 하영희 (2003). 죄책감, 도덕적 이탈 및 친구의 규칙위반성향과 청소년의 규칙위반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 (2), 39-52.
- 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 일탈행동 무경험집단과 경험집단의 환경, 심리, 행동 특성의 차이 분석. 한국아동교육학회, 아동교육, 13(2), 201-219.
- 김의철, 박영신 (1999). 한국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의 형성: 가정, 학교, 친구, 사회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3 (1), 99-142.
- 김의철, 박영신, 김의연, Tsuda, A., & Horiuchi, S. (2010).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어려움극복효능감, 스트레스 관리행동의 영향: 초, 중,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 (2), 특집호, 197-219.
- 김준호, 이순래 (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청송 (2007). 청소년의 우울, 스트레스 대처, 강인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587-598.
- 김하연, 오경자, 윤진 (1991). 청소년의 자아개념,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및 비행 간의 상호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99-212.

- 도금혜 (2008).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3), 133-150.
- 박순길, 조증열, 박영호 (2003). 또래비행동조, 신체적 성숙 및 스트레스가 중학생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473-486.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귀인양식, 건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1a).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63-89.
- 박영신, 김의철 (2001b).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 청소년과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 교사학생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특집호, 87-115.
-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III): 성취의 그늘, 한국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심리적 역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223-253.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 (3), 399-429.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중단 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1-41.
- 박영신, 김의철, 박영균 (2010). 세대 차이와 갈등은 삶의 질을 낮추는가?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3).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중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4). 한국 일탈 청소년의 토착심리 탐구: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1), 107-145.
- 박원모, 천성문 (2008).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41-59.
- 백혜정 (2009). 성별에 따른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비행 경험 관계에서의 부모의 지지와 자기통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37-56.
- 서울신문 (2010. 3. 1). 소년범 늘고 재범률도 높아졌다.
- 송미경 (2006). 청소년기 아동기의 일탈행동 경로분석 비교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제 3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 자료집*, 585~600.

- 안귀덕, 황정규, 김의철, 박영신 (1997). 한국 청소년 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연구논총 9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재소 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59-270.
- 이영경, 장훈, 최진이, 허태균 (2008). 부모-자녀가 지각한 의사소통 유형 일치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3), 389-404.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3-145.
- 이춘화 (1999). 청소년폭력 가해자와 가해 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3). 보호관찰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3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5-166. 2003년 8월 21일. 연세대학교 상경관.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7). 고등학생의 사이버 일탈과 인간관계, 심리특성 및 행동특성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4(4), 233-258.
- 한국일보 (2010. 7. 16). 재범률 30% 웃돌아... 사후관리 더 중요. '처벌보다 사회·교육 환경개선 우선돼야'.
- 한상철 (2008).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특집호, 273-298.
- Bandura, A. (1995a). Manual for the construction of self-efficacy scale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5b). Multifaceted scale of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Unpublished manuscript, Department of Psychology, Stanford University, USA.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Kim, Y. H., Park, Y. S. & Kim, U. (2007). Factors influencing delinquent behaviors among Korean adolescents: Longitudin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7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p.199-120. July 25-28, Magellan Sutura Harbour, Kota Kinabalu City, Malaysia.
- Park, Y. S. (2000). The impact of the changing parent-child relationship on adolescent functioning. Paper presented at 15th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ross-Cultural Psychology. p. 84. Pultusk, Poland.
- Park Y. S. (2001). Parent-child relationship, academic grade, life-satisfaction and delinquency: Comparison of primary, junior high, senior high and university students. Invited paper presented at the 49th Annual meeting of the Japanese Group Dynamics Association. p. 4-5. October, 27-28, The University of Kumamoto. Kumamoto, Japan.
- Park, Y. S. & Kim, U. (2003). The formation and change of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Korea-Japan Seminar, Tokyo University, Japan.
- Park, Y. S., & Kim, U. (2004). Paths to academic achievement, delinquency and life-satisfaction:

- Longitudinal analysis of influences of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cultural factors. Invited keynote address at the 17th International Congress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p. 11-12. August 2-6. Shaanxi Normal University, Xi'an, China.
- Park, Y. S. & Kim, U. (2006). The nature and dynamics of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in Korea: The influence of parents, teachers and friends. Paper presented at the 2006 international conference 'Asia's educational miracle: Child development in family, school and cultural contexts.'. p.61. October 28-29, Inha University, Korea.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329-335.
- Schunk, D. H., & Hanson, A. R. (1985). Peer models: Influence on children's self-efficacy and attribu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 313~322.
- 논문투고일 : 2010. 07. 20
1 차심사일 : 2010. 08. 02
게재확정일 : 2010. 08. 20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 and the influence of friends:
With specific focus on self-efficacy, parent-child conflict and
parental control**

Young-Shin Park

Inha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Uichol Kim

Inha University,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study examines adolescent delinquent behavior and the influence of friends, focusing specifically on friends' delinquent behavior and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parent-child conflict and parental control. A total of 1,399 adolescents attending five different high schools (male=642, female=756, consisting of 915 student attending high school and 484 students attending vocational high school) completed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Ahn, Hwang, Kim and Park (1997) and Bandura's (1995a) self-efficacy scale. Results indicate that those students who attend high school had parents with higher educ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better studying environment at home, while students attending vocational high school had higher parent-child conflict.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 had higher self-efficacy scores, while students attending vocational high school had higher scores on delinquent behavior. The results of LISREL analyses revealed a similar pattern for high school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ombined analysis indicate that friends' delinquent behavior, parent-child conflict and parental control had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students' delinquency behavior. Self-efficacy had a direct and negative influence of delinquency behavior. Similar pattern was obtained for friends' delinquency behavior, in which self-efficacy had a direct and negative influence of their delinquency behavior and their parent-child conflict and parental control had direct and positive effect on their delinquency behavior. In summary, those students who had lower self-efficacy, higher parent-child conflict and parental control, and with friends who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delinquent behavior, had higher scores on delinquent behavior. Also, those students who had friends with lower self-efficacy scores and with higher parent-child conflict and parental control are more likely to engage in delinquent behavior, which in turn influenced their delinquent behavior. Friends' delinquent behavior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students' delinquent behavior indicating the role of friends in influencing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Key words : *Delinquent behavior, friends' influence, self-efficacy, parent-child conflict, parental control*